

AUTHOR 송인규

TITLE 일반은총: 개혁파 신학 내에서의
상이한 견해들 (I)

IN 신학정론

vol.25 no.1 (June, 2007): 117-167

미신도 끊임없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³⁶⁾ 멜랑히톤(Melanchton)과 마찬가지로 칼빈도 이것의 교리적 실천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셨다. “요컨대 우리는 이 자유가 향하는 방향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선물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따라 아무 양심의 거라낌이나 마음에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얻을 것이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³⁷⁾ 예배 의식의 바른 형식이나 교회의 외적 질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의식은 구원에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³⁸⁾ 본래 고유하게 거룩한 것들, 관습들, 계절들, 혹은 절일(節日)들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연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다.³⁹⁾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옛 언약의 의식에서 자유롭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⁴⁰⁾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생과 의식들은 그리스도의 강림 때까지만 유효하며, 그 사건에 의해서 그것들은 폐기되었다.⁴¹⁾

이 모든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칼빈은 엄밀한 의미에서 율법의 폐기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는 율법을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비추어 해석하기 때문에 율법의 폐기 문제는 있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중심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강요에서 자유로우며, 그 의식과 정치적 법령에서 해방되는 동시에, 그 내적 내용에는 속박을 받는다. 그리스도는 정확히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으며, 우리의 범죄를 보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36) Inst., III. 19. 7.

37) Inst., III. 19. 8.

38) Inst., IV. 10. 30.

39) Inst., IV. 10. 32.

40) Inst., IV. 10. 32.

41) Ibid.

일반은총: 개혁파 신학 내에서의 상이한 견해들 (I)

송인규 | 조직신학 · 교수

“일반 은총”¹⁾(common grace)은 개혁파 신학 특유²⁾의 개념인 것이 틀림없이, 모든 개혁파 학자들이 일반 은총의 교리를 기꺼워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이 용어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그러한 용어를 말할 것도 없고 그 용어가 나타내고자 하는 개념까지도 일체 부인한다. 이런 차이는 개혁파 대 비(非)개혁파 학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개혁파 학자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바이다. 심지어는 학자 개개인 사이의 갈등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단의 분립이라는 엄청난 파장까지 몰고 왔다.

대표적인 예로, 화란 개혁파 교단의 후신인 북미 크리스천 개혁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약칭 CRC)로부터 미국 향의파³⁾ 개혁교회

1) 어떤 이들은 “일반 은총” 대신 “보통 은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적 장로교 내에서는 “일반 은총”이 더 빈번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필자는 이 용어를 채택하고자 한다.

2) 물론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그들이 common grace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개혁파 학자들이 염두에 둔 것과 사뭇 다르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common grace라는 용어를 소위 선행 은혜(prevenient grace)와 같은 것으로 여긴다 [Eldon R. Fuhrman, "Common Grace," *Beacon Dictionary of Theology*, ed. Richard S. Taylor (Kansas City, Missouri: Beacon Hill Press of Kansas City, 1983), p. 125].

(Protestant Reformed Churches in America; 약칭 PRC)가 분립되어 나온 일을 들 수 있다. 1924년 CRC는 당해년 대회에서 후대에 “일반 은총의 세 가지 요점”(Three Points of Common Grace)으로 알려진 내용을 채택했다. 그런데 CRC 내의 일부 목사들은 이 내용에 서명하기를 거부했고, 그 때문에 그들은 정직 혹은 면직을 당했다. 그 이듬해 3월 6일에 세 곳 당회가 함께 모여 공식적으로 새로운 교단 설립에 서명을 했고⁴⁾ 이로써 PRC가 출범되었다.

I. 일반 은총의 내용

일반 은총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CRC 교단이 1924년에 채택한 “일반 은총의 세 가지 요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요점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요점: 하나님께서 택지를 향하여서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해서 보이시는 호의적 태도와 관련하여, 본 대회는 성경과 고백서에 의거해 영생을 얻도록 선택된 자들에게만 보이시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와 별도로 자신의 피조물 전체에 대해 보이시는 어떤 호의나 은혜가 있다는 것이 확립될 수 있음을 선언한다. 이것은 인용하는 성구들(시 145:9; 마 5:44, 45; 눅 6:35-36; 행 14:16-17; 딤후 4:10; 롬 2:4; 겔 33:11; 겔 18:23) 및 복음의 일반적 제시를 다루는 도르트레히트 신조 2항 5조, 3-4항 8, 9조로부터 명확히 알 수 있다...

둘째 요점: 개인 및 공동체의 삶 가운데 죄를 억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본 대회는 성경 및 고백서에 의거해 그러한 죄의 억제가 존재함을 선언한다. 이것은 인용하는 성구들(시 81:11-12; 창 6:3; 행 7:42; 롬 1:24; 롬 1:26, 28; 살후

3) "Protestant"는 보통 "개신교"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지만, PRC가 CRC의 일반 은총 교리에 항의한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했다.

4) Herman Hanko, "Protestant Reformed Churches in America," *Dictionary of the Presbyterian & Reformed Tradition in America*, ed. D. G. Hart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1999), p. 203.

26-7) 및 화란 고백서 13 및 36조로부터 명백한데, 그 가르치는 바인즉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일반 역사에 의해 인간의 심령을 갱신하지는 않되 죄의 무제한적 발발을 억제함으로써 인간의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셋째 요점: 비종생자가 수행하는 시민적 의(civil righteousness)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 대회는 성경 및 고백서에 의거해 비종생자가 구원적 성격의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지만 시민적 선은 행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이것은 인용하는 성구들(왕하 10:29-30; 왕하 12:2; 14:3; 눅 6:33; 롬 2:14) 및 도르트레히트 신조 3-4항 4조, 화란 고백서 36조로부터 명백한데, 그 가르치는 바인즉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갱신하지는 않되 그에게 영향을 끼쳐 그가 시민적 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⁵⁾

일반 은총은 표현 그대로 하나님께서 택자나 비택자를 막론하고 인류 일반에게 공통적으로 베푸시는 호의 혹은 은총을 의미한다. 상기한 세 가지 요점에는 이러한 은총의 내용으로 (1)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 편에서의 호의, (2) 개인과 사회생활에서 죄를 억제하심, (3) 비종생자가 수행하는 시민적 의가 언급되어 있다.

비록 이상의 내용이 일반 은총의 윤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좀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갖게 하는 데는 미흡하다. 이 지점에서 빛을 던져 주는 것이 키퍼(H. Kuiper)의 분류이다.⁶⁾ 그는 일반 은총의 “일반”(common)이 실상 “공통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세 종류의 일반 은총을 열거했다.

(i) 보편적 일반 은총(Universal Common Grace):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 공통적인 은총으로서, 피조물의 존재, 고유적 특성의 견지, 자연적 생명의 유지(욥 33:4; 시 104:16-22, 26-28), 종의 번식(시 104:30) 등 현존하는 사물이면 그 어느 것이나 누리는 바이다.

(ii) 만민적 일반 은총(General Common Grace): 이 부류의 일반 은총은 인류

5) "Common grace" at http://www.prca.org/article_7.html.

6) Herman Kuiper, *Calvin on Common Grace* (Grand Rapids: Smitter Book Co., 1928), p. 179의 내용으로서,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58), pp. 434-5에 인용되었다.

전체 및 인간 개개인에게 공통되는 은총을 의미하는데, 해와 비 같은 자연적 은택의 향유(마 5:45), 노동수확 등으로 인한 정신적 만족(시 65:9~12; 104:15; 행 14:17), 혈통적·민족적 거주와 생활(사 42:5; 행 17:25~26, 28) 등이 이에 속한다.

(iii) 언약적 일반 은총(Covenant Common Grace): 이 은총은 언약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되는 것으로서, 구원까지는 아니지만 언약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은택을 직간접적으로 맞본다. 구약 시대의 경우, 이스마엘(창 16:10~12; 17:25; 21:20)과 에서(창 26:39~40)와 출애굽 당시 열 가지 재앙을 목도하고(신 4:34) 홍해를 건넜으나(출 14:31)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고전 10:5) 등이 언약적 일반 은총의 수혜자이다. 신약 시대의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을 받았으나 부정적으로 반응한 이들(마 13:19~22; 행 13:45~46), 성령의 일반적 역사에만 노출된 이들(히 6:4~6)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은총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은총의 향유 대상을 위계적으로(hierachically) 배열해 볼 수도 있다. 택자인 경우에는 (i) (ii) (iii)은 물론이고 구원에 해당하는 특수 은총까지도 누린다. 그러나 택자가 아니면서 언약의 영역에 있던 이들의 경우(이스라엘 백성이든 신약 시대 언약의 자손이든)에는 세 종류의 일반 은총 (i) (ii) (iii)을 향유하게 된다. 또 심지어 구약 시대 율법의 가르침이나 신약 시대 복음의 전파에 전혀 노출되지 않은 비택자라 할지라도 (i) (ii)의 일반 은총을 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아닌 모든 대상 — 비생물, 동식물의 경우 — 은 오직 (i)만 누린다.

II. 일반 은총 교리의 성립 근거

일반 은총이 이렇게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일반 은총의 교리를 주장할 것인가? 두 가지 사항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성경적 증거

일반 은총의 성경적 증거는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토대적 구절들(foundational passages)로서 이는 일반 은총의 교리적 토대를 마련하도록 돕는 내용의 성구들을 의미한다. 우선, 하나님의 성품으로 미루어 보아 일반 은총을 주장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도 선/은혜/공휼을 보이실 만큼 은혜로운 분으로 나타나 있다.

시 145:9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공휼을 베푸시는도다
 겔 18:23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눅 6:35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행 14:17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롬 2:4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들로부터도 일반 은총의 교리를 세울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워낙 은혜로우셔서 죄인들과 악한 자들에게조차 각양 은택과 선물을 분여하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창 39:5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와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시 145:15~16 ¹⁵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¹⁶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마 5:45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행 14:17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하고

행 17:25-26, 28 ²⁵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²⁶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 ²⁸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뻐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성경의 증거로부터 우리는 일반 은총의 교리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성경에는 일반 은총의 구체적 열매를 표명하는 예시적 구절들(illustrative passages)이 있는데, 이들은 일반 은총의 구체적 내용이나 영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도와준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나 악인(혹은 택자나 비택자)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요 또 각양 선물을 분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연적·문화적·사회적 삶은 풍요로운 열매를 맛보게 된다. 이제 일반 은총의 열매가 나타나는 영역을 다섯 가지⁷⁾로 나누어 이에 해당하는 구절들을 예시하고자 한다.

(i) 진노와 심판의 시행이 유예된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사망을 정하셨지만(창 2:17) 그 심판은 — 적어도 신체적 죽음만큼은 — 즉각 시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이것은 그의 일반 은총 때문이다.

7) 이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소개는 그 구분 및 내용 전개에 있어 Berkhof의 설명에 힘입은 바 크다(*Op. cit.*, pp. 441-4).

창 6: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됴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 이십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 48:9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눅 13:6-9 ⁶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⁷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어 어찌 땅만 버리느냐 ⁸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⁹이 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어나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대 하시니라

롬 2:4 후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벧후 3:9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ii) 개인 및 사회의 삶 속에서 죄가 억제된다: 인간의 전적 부패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개개인과 이 세상은 극악무도한 상태로 치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반 은총을 통해 인간과 사회의 삶에 죄가 지나친 파괴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억제하신다.

창 4: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창 20:6 하나님이 꿈에 또 그[아비멜렉]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창 31:7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삷을 열 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그[라반]을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왕하 19:28, 32-33 ²⁸네[앗수르] 왕 산헤립이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³²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쓰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³³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와의 말씀이시라

롬 13:1-4 ¹자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²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³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⁴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나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iii) 진선미에 대한 감각이 보존되고 신지식 및 도덕 의식을 견지한다: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때로 눈부신 예술적 재능, 학문적 기량, 과학적 성과 및 종교적 업적을 이루어 낸다. 또 모든 인간은 근원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한 바이다.

창 4:20-22 ²⁰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²¹그 아우의 이름을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툴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²²셀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왕상 4:30 솔로몬의 지혜가 등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욥 32:8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전 3: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롬 1:19-20 ¹⁹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²⁰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롬 2:14-15 ¹⁴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¹⁵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iv) 외형적 선이나 시민적 의를 수행한다: 인간은 그 부패성에도 불구하고 시민 생활이나 일상사에 있어서 올바른 것, 특히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적 선행들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비록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법과 외면적으로만 합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선행이요 의로운 행위이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왕하 10:28-31 ²⁸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떨하였으나 ²⁹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뱀엘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³⁰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지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³¹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여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대하 25:2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마 5:46-47 ⁴⁶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⁴⁷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눅 6:33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롬 2:14-15 ¹⁴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¹⁵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v) 현재에서 다수의 자연적 복들을 누리다: 인간은 누구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연적 은택을 풍성히 누리다.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들을 누리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일반 은총 덕분이다.

창 39:5 그보디발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권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와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시 65:9-10 ⁹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¹⁰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시 104:14-15 ¹⁴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¹⁵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마 5:45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행 14:17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행 17:25-26, 28 ²⁵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²⁶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²⁸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렇게 성경은 다섯 가지 영역에서 일반 은총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의 성경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일반 은총의 교리 형성과 관련하여 (i) 토대적 구절들과 (ii) 예시적 구절들을 소개했다. 이제 다음 분단에서는 일반 은총의 교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 신학적 설명을 선보이고자 한다.

(2) 신학적 설명

“일반 은총”이라는 가르침의 기원을 추적하다 보면 우리가 도달하는 종착점은 아무래도 칼빈(John Calvin, 1509~1564)의 사상이다. 그는 가히 “일반 은총”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그가 “일반 은총”이라는 용어를 확립된 형태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⁸⁾ 오늘날 개혁과 내에서 통용되는 일반 은총의 기본 개념만큼은 확고히 씨를 뿌려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우선 인간의 전적 부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성의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에 의거해 말한다.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가운데 아직도 어느 정도의 섬광이 어렴풋이 빛을 발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오성(悟性, understanding)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짐승과 달리 합리적 존재라는 것을 보여 준다.”⁹⁾

이러한 오성으로 지상의 일들을 파악하거나 인간 공동체의 존립에 필요한 근본 개념들을 의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예술에 대한 감각의 계발이나 학문적 성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오성의 역할은 중요하다. 칼빈은 모든 학문 분야에서의 발전과 성취를 또한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데, 그의

8) Herman Kuiper에 의하면 칼빈의 용어 사용에 있어 “common”이라는 형용사가 “grace”라는 명사와 결합한 경우는 4회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 2회조차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한다 (Louis Berkhof, *ibid.*, p. 434). 현재 우리가 찾는 개념과 가장 가까운 표현이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God's general grace, *generalis Dei gratia*)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온 인류 사이에서 발견하는 바인즉 이성(reason)은 우리의 본성 특유의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이성에 의해 짐승과 구별이 되는 것은, 마치 짐승이 감각(feeling)을 소유함으로써 무생물과 차이가 나는 것과 비슷하다. 여기서, 어떤 이들이 백지나 우둔한 상태로 태어나는 수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결합이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the general grace of God)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강조는 필자의 것)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II. 2. 17, p. 276). 칼빈은 여기에서 인간 특유의 기능인 “이성”을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라는 표현과 연관시키고 있다.

9) *Ibid.*, II. 2. 12, p. 270.

이런 입장은 다음의 설명에 명명백백히 드러난다.

우리가 우연히 세속 작가들에게서 이러한 사안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들 속에 비추이는 놀라운 진리의 빛으로부터, 비록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온전함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탁월한 선물들로 덧입혀지고 장식되어 있음을 배우도록 하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께서 진리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간주한다면, 우리는 진리 자체를 거부하거나 어디든 진리가 나타날 때 그것을 명시하지 말아야 한다 —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망신시키지 않고자 한다면 말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선물들을 갈잡게 여김으로써 우리는 성령님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우리는 시민적 질서와 규율을 그토록 형평성 있게 수렴한 고대의 법리학자들에게 진리의 빛이 비췄었다는 것을 부인하겠는가? 철학자들이 자연을 면밀히 관찰하고 뛰어난 솜씨로 기술한 데 대해 무분별한 것이었다고 말해야 하겠는가? 변론의 기술을 구상하고 우리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말하도록 가르친 이들을 가리켜 오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해야 하겠는가? 의학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한 이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말해야 하겠는가? 모든 수리(數理) 학문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광인들의 헛소리라고 간주해야 하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런 주제들에 대한 옛사람들의 저작을 읽으면서 감탄을 금할 길이 없다. 그들에 대해 경탄해 마지않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이들인지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기릴 만하거나 고상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을 때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연유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성경이 “육에 속한 사람”(자연인, natural man)[고전 2:14]이라고 부르는 그들이지만 땅의 일들(inferior things)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는 실로 영민하고 통찰력이 깊었던 것이다[강조는 필자의 짓].¹⁰⁾

칼빈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켜 “하나님의 특이한 은혜”(the peculiar grace of God)¹¹⁾라고 부른다. 이것은 결국 인류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께서 부여하시는 바 가장 뛰어난 은택들이다. 비록 칼빈이 구원과 연관된 성령의

역사를 자연적 선물을 부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구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후자 역시 성령의 역사인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전달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지?”라고 질문할 이유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신자에게만 내주한다는 진술(롬 8:9)이 우리를 하나님께 성전들로 성별시킨[고전 3:16] 성화의 영을 자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성령의 능력에 의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움직이시고 살리시는데, 그 분은 창조의 법칙에 의거해 각각의 종류에 대해 부여하신 특성을 좇아 그리하신다[강조는 필자의 짓].¹²⁾

인류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자연적 은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부패성이 무제한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막아 준다.

각 시대마다 본성의 인도를 받아 평생 동안 미덕을 힘써 추구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 예들은 인간 본성이 완벽히 타락했다고 하는 우리의 판단에 경고를 던져 주는 것 같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인간 본성에 자극을 받아 훌륭한 행위를 탁월하게 수행할 뿐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매우 명예스럽게 처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로 이 타락한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할 — 본성의 부패를 정결케 하지는 않되 그것을 내적으로 억제하는 — 여유가 있는 것이다. 만일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정욕 가운데 함부로 날뛰도록 자유를 허락하셨다면, 바울이 모든 사람을 정죄한 이유인 바 각양 악한 일시 14:3; 롬 3:12이 자기 안에서 고스라니 발견되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강조는 필자의 짓].¹³⁾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소극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외형적 선(혹은 시민적 의)을 진작시키는 데도 기여한다. 그 이유는 인간의

10) Ibid., II. 2. 15, pp. 273-4.

11) Ibid., II. 2. 14., p. 273.

12) Ibid., II. 2. 16, p. 274.

13) Ibid., II. 3. 3., p. 292.

마음이 사회성에 관한 기본 의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지상의 일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 현세의 삶과 … 그 안에 포함된 것들이다. … 첫 부류에는 정부, 가정 관리, 모든 기계에 관한 기술 및 교양이 포함된다…

이 첫 부류와 관련하여, 인간은 본디 사회적 동물이므로 그는 본성적 직감으로 말미암아 사회를 육성하고 보존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것을 언급해야겠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 생활에 있어서 공정한 관계 및 질서에 관한 보편적 인상(universal impressions)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음을 관찰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인간 조직이 법률에 의해 규제화되어야 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런 법률의 원칙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법률과 관련하여 모든 국가들 및 개인들이 한결같이 동의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법률 교사나 입법자가 없더라도 법률에 대한 의식의 씨앗은 모든 사람들 속에 심겨 있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질서에 관한 의식의 씨앗이 모든 사람들 속에 심겨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강조는 필자의 것).¹⁴⁾

칼빈은 이처럼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로 구별했고, 구원과 무관하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함을 누차에 걸쳐 강조했다. 바로 이런 “특이한 은혜”로 인해 인간은 학문·도덕·예술의 제분야에서 진리를 추구할 수 있고, 죄의 영향이 억제를 받아 무제한적으로 발현되지 않는 것을 목격하며, 사회생활 가운데 외적인 선이나 시민적 의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칼빈의 글은 일반 은총의 교리가 확립되는 데 필요한 신학적 설명을 다각도에서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14) Ibid., II. 2. 13, pp. 272-3.

III. 일반 은총에 대한 적극적 입장

칼빈이 일반 은총 교리의 기초를 마련한 원조라면,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그 바통을 이어 받아 일반 은총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체계화한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1)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주권

카이퍼가 일반 은총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게 된 근본 동기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천명하려는 데 있었다. 이것을 다른 어디보다도 『일반 은총론』의 서문에서 명확히 밝힌다.

… 일반 은총의 교리는 모든 개혁과 사상의 근원적 확신인 바 주님의 주권 사상으로부터 직접 발출한다. 만일 하나님이 주권적이시라면, 그의 주위심은 필시 모든 삶 위에 머물러야 하고 교회의 울타리나 기독교계 내부에만 갇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독교 세계 밖의 영역은 사단이나 타락한 인류나 혹은 우연(chance)에게 넘겨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위대하고 비수세(非受洗)의 영역과 관련해서도 전(全)통치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나 뒷전으로 치질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일하신다면, 그는 그곳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시 손에 쟁기를 잡고 계실 것이다.¹⁵⁾

또 그가 일반 은총론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개혁과 신앙의 고백 — 인간의 전적 타락 — 과 비신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선한 열매 사이의 이론적 불일치 때문이기도 했다.

15) Abraham Kuyper, "Common Grace," in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ed. James D. Brat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p. 166.

“일반 은총”의 교리는 ...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죄의 치명적 성격에 관한 고백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다 ... 의견상으로 보아, 이[고백]는 삶의 실상(reality)과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저 죄 많은 세상, 곧 교회 밖에는 아름다운 것들, 칭찬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고, 부러워할 만한 것들도 너무 많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선택에 직면해 있다. 우리의 판단에 거슬러 이 모든 선한 것을 거부하면서 길을 잃은 채 재세례파에 합세할 것인가? 아니면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토록 심하게 타락한 것은 아니라고 함으로써 역시 길을 잃은 채 아르미니우스적 이론(異論)으로 나아갈 것인가? ... 그러나 이 의견상 모순에 대한 해결책은 은총이 교회 밖 이교도들 사이에도, 또 세상 한가운데에도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발견된다. 물론 이 은총은 영원하거나 구원을 베푸는 은총이 아니요, 죄 안에 내재한 부패성을 억제하는 현세적 은총이다.¹⁶⁾

(2) 문화의 구속사적 발전

이제 이상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여 일반 은총의 구속사적 궤적을 그려 보도록 하자. 첫째, 카이퍼에 의하면 일반 은총은 타락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일반 은총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는 순간부터 작동되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그 실과를 따 먹는 순간 신체적 생명이 종료될 뿐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했다. 그러나 그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아담은 여전히 살아 있었고, 그들이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은 세상 끝날까지 연기되었다. 카이퍼는 타락 이후에 생긴 사태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은총의 개념을 도입한다.

우리는 (타락 이후) 이 새로 시작된 상황이 예언된 죄의 결과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에 살펴보았다. 죄의 만개적(滿開的) 결과는 당일에 시작되지

않았고, 개혁과 신학자들은 예언된 불행이 도래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는 은총(saving and long-suffering grace)의 출현을 목도하게 되었는지 일관성 있게 가르쳐 왔다. 물론 이것이 은총의 첫 현현은 아니니, 그 이유는 낙원에서 인간 생활이란 자신을 감싸 주고 내면까지 침투하는 은총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이성적 피조물에게는 은총이 숨 쉬는 공기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신적 은총은 이제 처음으로 구원을 베푸는 은총(saving grace) - 우리가 죄인인 고로 그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참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총을 인식하게 된 것인데 - 의 특징을 획득하게 되었다.¹⁷⁾

아담과 하와는 이미 타락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있었다. 그러나 은총이란 죄의 상태에서만 은총으로 나타나는 법이기 때문에 타락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은총은 이렇게 구원의 은총일 뿐만 아니고 동시에 일반적 은총이기도 했다.

실상 특수한(special) 성격의 구원 은총(saving grace)과 일반적(common) 성격의 억제적 은총(restraining grace) 사이에 모종의 연관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이것은, 일반 은총이 없었더라면 태자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요 대낮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부터 명확히 알 수 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당일에 죽었다면, 셋은 그들로부터 - 또 에녹은 셋으로부터 -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요, 여러 갈래의 인종으로 퍼져 나간 백성과 민족들이 땅 위에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¹⁸⁾

이처럼 일반 은총은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그 효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 일반 은총은 그 기초를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이 언약이 일반 은총 교리의 “확고한 역사적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¹⁹⁾

16) 카이퍼의 이 내용은, Jacob Klapwijk, "Antithesis and Common Grace," in *Bringing into Captivity Every Thought: Capita Selecta in the History of Christian Evaluations of Non-Christian Philosophy*, eds. Jacob Klapwijk et al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1), p. 171에 인용되었다.

17) Abraham Kuyper, "Common Grace," p. 167.

18) Ibid., p. 169.

19) William Masselink, *General Revelation and Common Grace* (Grand Rapids, Michigan:

노아 언약이 이토록 중시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i) 노아의 언약은 전 인류 및 피조계 전체와 맺은 것으로서 그 은택 또한 인류 전체에게 미친다.²⁰⁾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은 실상 “너희[노아 및 아들들과 후손들](창 9:9)이 보여 주듯 모든 인간들뿐 아니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창 9:11) — 곧 새, 육축, 짐승 등 — 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 점은 그 후에도 12절, 15절, 16절, 17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이 언약의 수혜자 가운데에는 모든 인류가 포함된다고 하겠다.

(ii) 죄를 억제하는 일반 은총의 효능은 홍수 이후에도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더욱 증가되었다.²¹⁾ 이 증거는 다음과 같다. ① 노아 홍수와 같은 격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고, ② 일부 맹수들이 홍수와 더불어 사라짐으로써 재등장하지 않게 되었으며, ③ 특히 인간이 다섯 가지 면 — a. 인간 통치 (government)의 제도에 의해 죄가 규제되었다(창 9:6); b. 동물들에게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인간을 보호하였다(창 9:2); c.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시는 홍수라는 전 지구적 격변을 초래하지 않으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더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창 9:11); d. 인간 수명이 줄어들음으로써 인간이 죄를 더 극심히 저울 수 있는 기회 또한 줄어들게 되었다; e. 인간에게 채소뿐 아니라 동물도 음식으로 주셨다(창 9:3) — 에서 일반 은총의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증거에 입각할 때, 인류는 오히려 노아 홍수 이후에 일반 은총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 홍수 이후 온 인류와 관련하여 다시금 문화 명령이 공표되었다.²²⁾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창 9:7)고 다시금 문화 명령을 새로이 전달하였다. 이 명령은 택자에게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이다. 비록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명령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이미 무의식중에 이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iv) 일반 은총의 효능은 노아의 언약부터 새롭게 시작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된다.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초를 두고 있다. ① 이 세상의 역사에는 세 분기점이 있는데, 타락 · 홍수 · 채질의 풀어짐 (벧후 3:10) — 곧 세상의 종말 — 이다. 그렇다면 상이한 일반 은총의 효능은 노아의 홍수부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발동한다고 할 수 있다.²³⁾ ② 선지자 이사야는 노아의 홍수를 언급하면서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라고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여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지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와 의 말이니라”(사 54:9-10)라고 말했다.²⁴⁾ 이 구절이 밝히는 바인즉, 노아의 홍수 때 산이 떠나고 옮기는 격변이 있었다는 것이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은 영원히 유효한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금 이런 격변이 있으리라고 말한다(마 24:29-30). 따라서 적어도 노아 홍수 이후부터 주님의 재림 전까지는 이런 격변이 없을 것이고, 이것은 동시에 일반 은총의 효험 있는 작동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③ 신약의 증거에 의하면 세상의 종말과 관련하여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리라고 말한다(살후 2:3). 그런데 그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막는 자”(restrainer)가 아직 옮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살후 2:7).²⁵⁾ 그 막는 자가 제거되고 불법의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3), p. 194.

20) Ibid., pp. 197-8.

21) Ibid., pp. 199-200.

22) Ibid., p. 200.

23) Ibid., pp. 198-9.

24) Ibid., p. 199.

사람이 나타나면, 지금까지 악을 저지하던 힘은 거두어지는 셈이다. 이렇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막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일반 은총과 연관이 있다. 다시 말해서 악의 저지가 이루어지는 시기 — 노아 홍수 이후부터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때까지 — 는 동시에 일반 은총의 효능이 발휘되는 시기이기도 한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노아의 언약으로 인한 일반 은총의 효능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셋째, 일반 은총은 온 인류의 문명사적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다. 이제 일반 은총은 인간의 삶 곳곳에 침투하여 죄를 억제하고 문명의 꽃을 피우게 해 주었다.²⁶⁾ 카이퍼에 의하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로 귀히 여기고 세상의 삶을 유지하심에 있어 일반 은총의 역할을 인정함으로써, “가정 생활은 다시금 독자성을 획득했고, 무역과 상업은 자유롭게 그 힘을 실현했으며, 예술과 과학은 모든 교회적 속박에서 해방되어 영감을 받은 원래의 목표대로 회복되었고, 인간은 잠재적 능력과 보화의 원천인 자연을 자신에게 복속시키는 일이 ‘땅을 정복하라’는 낙원의 원초적 규례에 의해 그에게 부과된 거룩한 의무로 이해하기 시작했다.”²⁷⁾

카이퍼는 이러한 종교적 신념이 원동력이 되자 인류의 문명사는 결국 그 당시 서구 사회(유럽과 미국)에서 그 극치를 이루었다고 본다. 중국, 인도, 멕시코의 운명이 한때 발흥했으나 계속 이어지지 못한 반면, 여기 전 세계적 영향을 끼친 또 하나의 흐름이 있었다.

25) Ibid.

26)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자연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규례를 받았다 (창 1:28).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아담의 후손은 자연에 대한 통치력을 상실했고, 또 따라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과 결별한 셈이 되었다. “그런데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연을 다스리는 이러한 능력은 학문의 발전 가운데 회복되었고, 그에 따라 저주의 영향력도 감소되었다”[Henry R. Van Til,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2001), p. 121]. 카이퍼에 의하면 일반 은총은 이처럼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의 회복과도 연관이 되어 있었다.

27)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reprint), p. 130.

이 흐름은 중앙 아시아와 레반트 지역[시리아-레비논-이스라엘 등 동부 지중해 연안 제국을 의미: 역자 주에서 기원하였고, 꾸준히 그 길을 달려 동방에서 서방으로 향했다. 그 흐름은 서부 유럽으로부터 미국 동부의 주들로 옮겨 갔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캘리포니아에 이르렀다. 이 발전의 흐름은 그 근원을 바벨로니아와 나일 유역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흐름은 거기서부터 회람으로 흘러 들어갔고 다시 회람으로부터 로마 제국으로 옮겨 갔다. 로마 국가들로부터 유럽의 북서부로 달려가다가 마침내 화란과 영국으로부터 여러분의 대륙(미국: 역자 주)에 도달한 것이다.²⁸⁾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에 의해²⁹⁾ 인간의 문화적 생활을 발전시키셨고 인류의 문명사를 이루신 것이다. 그런데 일반 은총의 이러한 기여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반 은총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서로 매우 다른 두 가지 작동 방식을 구별해야 한다. 비록 “일반 은총”이 우리 인간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일반 은총은 우리 실존의 내면적(interior) 부분을, 또 하나는 외면적(exterior) 부분을 겨냥한다. 전자는 시민적 미덕(civic virtue), 가정에 대한 애착, 자연적 애정, 인간적 미덕의 실행, 공적 양심의 개선, 정직성, 사람들 사이의 상호 충성 및 효심(孝心)에 대한 감각 등이 삶에 누룩처럼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작동한다. 후자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능력이 증대될 때 — 발명에 발명이 거듭되면서 삶이 풍요롭게 될 때, 국제간에 의사소통

28) Ibid., pp. 32-3.

29) 물론 이 진술은 다소 단순화한 표현이고, 그림을 포괄적으로 그리려면 특수 은총의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문화적 발전은 무엇보다도 일반 은총의 결과이다. 이 은총은 일반적인 것이기에 문화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문화는 어디에서나 발전이 되어 있다. 동시에 일반 은총에 근거한 문화는 매우 제한적임도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문화는 오직 특수 은총이 부가될 때에만 최대의 성장에 이를 것이다”(강조는 필자의 것) [N. H. Gootjes, "Schilder on Christ and Culture," in *Always Obedient: Essays on the Teachings of Dr. Klaas Schilder*, ed. J. Geertsema (Phillipsburg, New Jersey: P & R Publishing, 1995), pp. 37-8]. 사실 이 때문에 카이퍼는, 다른 모든 운명의 흐름은 발전이 중단되었으나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흐름만큼은 그 당시로서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한 것이다.

이 개선되고, 예술이 번창하며, 학문이 우리의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삶의 편의와 즐거움이 배가될 때, 삶에 대한 모든 표현이 좀 더 생기발랄하고 찬란해지며, 형식이 좀 더 세련되고, 삶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좀 더 매력적이 될 때 - 그 면모가 드러난다.³⁰⁾

내면적 작동 방식은 주로 인간의 도덕적 결실과 연관이 되고, 외면적 작동 방식은 주로 인간의 기술적 발전을 설명해 준다.

바로 이러한 일반 은총의 두 가지 작동 방식에 의해 인류의 문화적 발전은 고도의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었던 것이다.

넷째, 인간의 문화는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문화의 발전과 진보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발전과 진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 이래 지금까지의 시간적 간격 속에 경과한 여러 세기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결코 맹목적 공간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해야 하겠다. 우리 이전 시대들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거하건대 분명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목적을 이해하려면 인류의 지속적 발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때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발전의 결과인 우리 인류의 역사는 사단이나 인간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연유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런 발전을 인정하지 못하든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다. 성경은 “세상 끝”(consummation of the ages)마 13:39-40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끝”이라는 말은 시간의 흐름이 어느 시점에 종료된다는 뜻에서 끝이 아니고, 그것이 최종의 목표를 향하고 있으며 이런 시간의 흐름에 포함된 모든 것이 그 최종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끝이다.³¹⁾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발전이 상당히 많은 경우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

지도록 하셨다. 그래서 고난은 꼭 심판의 표시로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문화적 발전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 - 우리로서는 일종의 “발견 장치”(heuristic devices) - 으로서도 간주해야 한다. 우리는 고난에 대처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면서 많은 문화적 발견물들을 축적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세기가 대를 이어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거듭 영감을 주셔서 고난에 대처할 수단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셨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노아는 아담보다 모세는 노아보다 솔로몬은 모세보다 훨씬 발전한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을 거치면서 우리의 조상보다 훨씬 더 앞서고 있는 것이다 ... 바로 이것이 우리 인류의 발전인 것이고, 오직 여기에 발전의 진정한 요소가 들어 있는 것이다...”³²⁾

그러므로 일반 은총에 의해 꽃피운 인간의 문화와 문명은 아무런 항방 없이 우발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동시에 인류의 문명사에 나타난 어느 한 가지 사항도 - 혹시 보잘것없고 사람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도 - 무가치하게 여길 수는 없는 것이다. 카이퍼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따라서 어떤 반 세기도, 또 심지어 반의 반 세기도, 낭비되는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 무슨 빈 공간이라든지 정체 현상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아직 땅 위에 자라나고 있지 않은 것들은, 씨앗이 발아를 하든지 혹은 뿌리를 튼튼히 하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이미 땅 밑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다. 그 어떤 일 년, 어떤 하루, 어떤 한 시간이라도 낭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 모든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가운데, 이 세상의 전체적 삶 가운데 쉬지 않고 그의 사역을 지속해 오셨다. 그 가운데 목적이 없든지 덤으로 여길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 지나간 모든 세기 동안 애굽인들이든 희랍인들이든 바빌로니인들이든 로마든, 또 오늘날 어떤 대륙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든, 무엇이든지 불필요한

30) Ibid., p. 181.

31) Abraham Kuyper, "Common Grace," p. 175.

32) Ibid., pp. 175-6.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 발전의 극치를 이루시기 위해 행하고 계시는 위대한 역사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었다.”(강조는 필자의 것)³³⁾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인한 문화의 완성을 통하여 구속사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카이퍼에 의하면, 인간 문화의 완성에는 두 측면이 있다. 일반 은총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듯 인간의 번영을 가져다주는 요인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악이 최고조에 이르도록 만드는 역할도 한다. 인간의 삶은 부와 과학과 문명의 발전에 힘입어 그 영광의 극치에 달할 것이다. 그 극치에 이르러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시점이 올 때 “불법의 사람”(살후 2:3)이 나타나 이 모든 문화의 발전 체제를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 관계로 끌고 가고자 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입의 기운으로 죽이심으로써(살후 2:8) 인류의 운명 또한 심판의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물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의문이 대두된다. 문화의 생성과 발전이 일반 은총에 의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선한 일이었는데 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카이퍼는 이 시점에 임해 일반 은총의 두 가지 작동 방식 — 내면적 측면(도덕적 결실 및 외면적 측면(기술적 발전) — 을 언급한다.³⁴⁾ 인류 역사의 처음에는 전자의 작동 방식이 활발하고 후자는 미미하지만 종말에 이를수록 그 작동 양태가 뒤바뀐다. 즉 인간의 과학·예술·학문적 발전은 점점 풍성해지지만 도덕적 열매는 점점 줄어들어 결국 인간 사회는 악의 온상으로 바뀔 것이다.

종말에 이르러 “큰 성 바벨론”에는 두 가지 작동 방식이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심판의 때에 무너지고야 말 세계적 세력의 영광은 오직 두 번째 종류(외적 측면의 일반 은총에만 존재할 것이다. 외형적 삶의 풍요는 내면적 삶의 빈곤에 비례하게 된다. 인간의 마음, 인간 관계 및 공적 실행에 영향을 주는 일반 은총은 점점 감소되고, 오직 다른 작동 방식 — 인간의 정신과 감각만 풍요롭게 하고 만족시키는 것 — 만이 그 극치에 다다를 것이다. 악취를 풍기는 해골로

33) Ibid., p. 176.

34)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p. 137) 언급한 바 있다.

가득찬 — 그리하여 겉으로는 화려하나 속으로는 죽어 있는 — 장려한 백색 무덤, 그것이 바로 심판을 받기에 무르익은 바벨론의 모습이다.³⁵⁾

물론 그렇다고 하여 마지막 때에 문화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동시에 문화물들과 문화의 산물들이 있는 그대로 천국에 유입된다는 것도 아니다. 카이퍼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리새 예루살렘로 들어오리라”(계 21:26)는 말씀에 기초하여, 모든 문화 영역에 있어서 인간이 발전시킨 것들은 필히 영원한 상태까지 — 물론 죄의 악한 영향력은 제외하고 — 이어지리라고 믿는다.³⁶⁾ 그는 두 가지 성구로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첫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마 5:5)고 할 때, 그 땅은 결코 인간의 문화적 업적이 모두 배제된 맨 땅을 의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저희의 행한 일이 따른다”(계 14:13)고 했는데, 이 일은 특수 은총의 수고뿐 아니라 분명 일반 은총의 수고도 포함하리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악한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 악한 이들을 포함한 온 인류의 문화적 산물은 온전히 정결케 되어 영원히 천국에 보존된다는 것이다.³⁷⁾

(3) 일반 은총과 특수 은총 사이의 관계

일반 은총에 관한 카이퍼의 가르침이 제대로 수립되려면 특수 은총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동시에 가장 중요하다. 첫째, 일반 은총은 특수 은총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카이퍼는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의

35) Ibid., pp. 181-2.

36) Henry R. Van Til, *ibid.*, p. 121.

37) 이와 관련하여, Richard J. Mouw, *When the Kings Come Marching In: Isaiah and the New Jerusalem*, rev. ed.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2)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삶에 현시되는 두 차원을, 다음과 같이 대별적으로 설명한다.

이 은총은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었을 그러한 결과들을 억제하거나 저지하거나 혹은 재조정하는 데 나타난다. 이것은 죄의 독성이 자연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차단하고, 독성의 방향을 바꾸어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그 독성에 정면으로 맞서서 무효화시켜 버린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는 이 은총의 현시와 관련하여 필히 두 가지 차원을 구별해야 한다. 1. 구원의 은혜(a saving grace)로서, 이는 궁극적으로 죄를 철폐하고 그 결과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한다. 2. 일시적 억제 은혜(a temporal restraining grace)인데, 이는 죄의 영향을 저지하고 차단한다. 전자 곧 구원의 은혜는 그 성격상 특수한(special) 것이고 하나님의 택자에게만 한정된다. 둘째인 일반 은총(common grace)은 우리 인간의 삶 전체에 미치는 것이다.³⁸⁾

상기 설명 내용에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 (i) 하나님의 은총은 궁극적으로 하나이지만 두 가지 방면(혹은 차원)으로 작동한다. (ii) 특수 은총의 본질적 특성은 최소한 세 가지이다. ① 특수 은총은 죄의 독성을 무효화시키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죄책(guilt)을 제거하고 오염(pollution)으로부터 정결케 한다. ② 특수 은총은 택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점에서 “특수적”(special)이다. ③ 특수 은총을 받은 이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된다. (iii) 일반 은총의 본질적 특성 역시 세 가지로 열거할 수 있다. ① 일반 은총은 죄의 외형적 영향력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뿐이다. ② 일반 은총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인류 “공통적”(common)이다. ③ 일반 은총의 수혜자들은 구원과는 상관없이 자연적인 삶의 면에서 은택을 누린다.

이상에서 보았듯 일반 은총은 모든 인류에게 비(非)구원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일반 은총이 항시 이렇게 인류의 죄와 그 영향을 억제하는 소극적 역할만 맡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일반 은총은 또 인류의 삶과 관련하여 문화 건설이라는 적극적 역할도 수행한다. “특수” 은총에 있어서

의 위대한 신적 사역 이외에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형태의 신적 사역이 존재한다. 이 사역은 온 세계의 삶 전체 — 아프리카 카피르족(Kaffirs)[남아프리카의 반투 종족: 역사 주의 삶, 중국과 일본에서 사는 몽골족의 삶, 그리고 히말라야 남부에서 사는 인도인의 삶 등 — 를 포함한다.”³⁹⁾ 이러한 문화 건설은 더욱 근본적으로 역사의 발전에 힘입은 것인데, 이 역시 일반 은총과 연관이 있다.

… 일반 은총은 역사의 장을 열고, 엄청난 양의 시간을 풀어헤치는가 하면, 방대하고 항구적인 사건의 흐름을 촉발했다 — 다시 말해서 여러 세기가 연달아 이어지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 비록 이런 연속적 시간이 깊은 흑암의 시기를 통과하기도 하지만, 이런 변화는 더 많은 불꽃을 일으키고 시종일관 인간의 삶을 풍요케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적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는 항구적 발전 — 인간의 삶에 대한 점진적이고 충만한 개현 — 이라는 특징을 띠기 마련이다. 만일 어떤 이가 오두막(kraal)에 살고 있는 후텐토티족(Huttentot)[남아프리카의 미개인: 역사 주의 삶과 유럽 사회의 매우 세련된 한 가족의 삶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그려볼 수 있다면, 그는 둘 사이의 발전 상황을 한순간에 판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해당 세기의 발전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 세기의 끝이 당도할 때마다 그 이상의 발전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세기가 가르쳐 주는 바는 그때그때 새로이 부가된 것들이 그 전까지 상상해 온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이다.⁴⁰⁾

이렇게 일반 은총은 단지 죄의 억제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문화 건설과 역사 발전에도 커다란 동인이 되어 왔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의 본질이 비구원적이라는 점에서는 특수 은총과 차이가 난다.

둘째, 일반 은총과 특수 은총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이룬다. 비록 일반 은총이 이렇게 본질적 성격에 있어서 특수 은총과 차이가 나지만, 그렇다고

38) Abraham Kuyper, "Common Grace," p. 168.

39) Ibid., p. 176.

40) Ibid., p. 174.

하여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된 채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카이퍼는 이 점을 두 가지 면으로 설명한다. (i)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밝히다 보면 두 측면의 은총은 함께 만난다. 카이퍼는, “그리스도는 오직 속죄자 (Expiator of sin)로서의 사역만 수행하시는가?”라는 수사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문제에 접근한다. 물론 그는 이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라는 것 이외에 다른 아무 중요성도 갖지 않는다는 생각은, 성경을 신중히 읽는 이들에 의해서는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골고다에서 끝나 종결되고 막을 내린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 및 초대 교회와 같은 편에 서서, 우리의 주님이 사물의 현 체계를 종식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도래시키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를 계속 기대해야 할 것인가? 요점을 정리하자면, 우리 영혼의 화해자(Reconciler)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바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영혼과 육체의 구세주이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뿐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있으며 보이는 일들과 관련해서도 재창조자(Re-creator)가 되신다고 계속 고백해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영역에 대해서만 의미심장한 분이신가? 아니면 자연적이고 가시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의미심장한 분이신가?⁴¹⁾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이 자연적 영역과 영적 영역을 아우르는 전 피조 영역에 대한 것임을 인정할 때 일반 은총과 특수 은총은 한데 어우러지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때, 두 은총의 연결을 목도하게 된다.

성경은 특수 은총의 삶과 일반 은총의 삶이 한데 엮여져 있는 것이라고 반복해 말할 뿐 아니라 동시에 이 두 가지의 접점은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이 아니요 오히려 영원한 말씀으로서 그의 영원한 실존임을 드러낸다 ... 그러나 요한의 복음서는 이 진리를 시초부터 첨예하게 부각시킨다. 요한은 구속의

중보자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창조의 중보자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일반 은총”의 위치에서 출발하여 거기서부터 “특수 은총”의 위치에 다다른다.⁴²⁾

... 창조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는 — 또 일반 은총의 역사와 특수 은총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두 출발점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 그리스도 안에서 더 높은 합일점을 발견하게 된다 ...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징모(徵募)된 — 외부로부터의 이질적 요소로서 신적 계획에 등장한 —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자는 성부 및 성령과 더불어 친히 세상의 계획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작정에 의해 (by the Decree) 그리고 그 작정의 실현을 위해 (for the execution of that Decree) 징모된 것이 아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영원한 평화의 의논”(eternal counsel of peace)에서 그 작정 가운데 자신을 참여시키고 스스로 작정의 성취를 위한 임무에 자신을 얽어매신다. 그러나 그가 구속의 작정에서 진실로 죄인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고자 책임을 떠맡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같은 작정 가운데 창조의 중보자이기도 하다(이 부분의 강조는 필자의 것). 처음에는 구속의 중보자가 되었다가, 그리고 나서 그 역할을 성취하기 위해 창조의 중보자로 용인되는 식이 아니다. 오히려 창조 및 그 가운데 포함된 모든 것의 작정을 실행하고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 원래 창조의 중보자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구속의 중보자이기도 한 것이다.⁴³⁾

영원한 말씀은 작정 이전에 또 작정 가운데 존재하시는 고로, 또 그 작정 가운데 그가 친히(in his own person) 창조와 구속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고로, 특별 은총에 의한 구속의 사역은 세상의 삶으로부터 피러릴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는 단일한 작정으로부터 또 삼위일체 가운데 동일한 위격으로부터 유래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요 또 계속해서 하나로 남게 된다. 만물을 창조하고 존재케 하는 분이라고 묘사된 이와 영생으로 부름 받은 모든 이를 구원하는 분이라고 묘사된 이는 같은 주체자이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사회생활에서 향유하는 이나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의 “특수 은총”을 향유하는 이는 동일 인물이다. 하나의 같은 인물이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지체이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반짝이게 하시는 일이나 사람들을

42) Ibid., p. 183.

43) Ibid., p. 185.

41) Ibid., p. 171.

구원으로 이끄는 데 있어 신적 연민(divine compassion)을 드높이는 일은 모두 다 같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바이다.

그러므로 일반 은총은 특수 은총에 대해 형성적 영향력(formative impact)을, 또 특수 은총은 일반 은총에 대해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해야 한다. 둘 사이를 나눠 놓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강하게 반대를 받아야 한다. 이 세상의 삶과 영원한 삶, 우리의 세상 생활과 교회 생활, 종교와 시민적 삶, 교회와 국가, 그리고 많은 다른 것들은 함께 가야 한다. 이들이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마지막 강조 부분은 필자의 것]⁴⁴⁾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옳게 파악할 때, 특수 은총과 일반 은총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다.

(ii) 교회가 세상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데 착념하면 당연히 특수 은총과 일반 은총이 한데 어우러진다. 카이퍼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된다고 할 때 여기에 이미 특수 은총과 일반 은총의 어우름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본다. “예수께서 교회를 산 위에 있는 동리(a city set on a hill)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빛은 보다 넓은 지역으로 퍼져야 한다. 좀 더 평범하게 표현하자면, 주님의 교회로부터 거룩케 하고 정결케 하는 감화력이 흘러나와 교회가 활동하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이다.”⁴⁵⁾ 그리고 나서 그는 이러한 영향의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 감화력은 교회가 편박과 반대를 영웅적 용기로 감당하기 때문에 찬탄을 일으키므로써 시작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힘은 교회의 영역에서 영위하는 삶의 간절함과 순수함으로 인해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일으켜야 한다.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훈훈한 사랑과 동정심에 의해 사람들의 공감을 자극해야 한다. 끝으로, 이 모든 것들의 결과로서, 그 감화력은 사람들 사이에 보편화된 생각들을 정화시키고 고상하게 만들어야 하고, 여론의 수준을 향상하며, 좀

더 건실한 윤리들을 도입함으로써 국가, 사회 및 가정에 편만해 있는 인생관을 양질의 것으로 고양시켜야 한다 ... 그 결과는 두 가지인데, (1) “산 위에 있는 동리”로서의 교회의 설립과 (2) 교회 밖의 시민적 삶이 점차적으로 고양되고 정결케 되는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결과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은총의 자연스런 결실을 — “산 위에 있는 동리”에서는 특별 은총의 열매를, 고결하게 바뀐 사회에서는 일반 은총의 열매를 — 목도하게 된다.⁴⁶⁾

카이퍼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 국가”(a Christian nation)나 “기독교 사회”(a Christian society)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정확한 의미를 밝힌다.

... 이런 국가에서는 교회의 특수 은총이 일반 은총에 미치는 형성적 영향력이 하도 강해서 일반 은총이 최고도로 발전하게 된다. “기독교”(Christian)라는 형용사는 그러므로 그런 나라 국민의 영적 상태에 대해 무엇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 범국민적 마음 자세, 유행하는 생각, 도덕적 표준, 법과 관습 등이 명백히 기독교 신앙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따름이다. 비록 이러한 증거가 특수 은총의 덕분이라는 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최소는 일반 은총의 영역, 곧 시민으로서의 일상 생활이다.[마지막 강조 부분은 필자의 것]⁴⁷⁾

그러면서 네 가지 유형의 영역을 제시하는데, 이는 일반 은총과 특수 은총의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첫째, 아직 특수 은총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일반 은총의 영역이다. 둘째, 전적으로 또 오직 특수 은총으로부터 일어난 제도적 교회의 영역이다. 셋째, 특수 은총의 불빛에 의해 밝게 비추어진 일반 은총의 영역이다. 넷째, 일반 은총의 데이터를 활용한 특수 은총의 영역이다.”⁴⁸⁾

여기에서 말하는 “영역”은 국가(중국, 유럽, 미국 등)일 수도 있고 한 국가 내의 어떤 분야(스포츠계, 연예계, 정치계 등)일 수도 있다. 이 가운데 가장

44) Ibid., pp. 185-6.

45) Ibid., p. 195.

46) Ibid., pp. 195-6.

47) Ibid., p. 199.

48) Ibid.

상위에 속한 영역은 넷째 항목인데, 이는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 곳, 예를 들어 예수를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자기 삶의 반경에서 일반 은총의 삶으로 하여금 신적 계시의 원리에 지배를 받도록 만든 곳”⁴⁹⁾이다. 카이퍼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예술, 기독교 학교, 기독교 출판사, 기독교 학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일반 은총과 특수 은총의 온전한 결합 때문이다.

셋째, 일반 은총은 특수 은총과의 차이 때문에 반립(antithesis)의 현상에 직면한다. “반립”(antithesis)이라는 말은 희랍어 *ἀντί*(against)와 *τίθημι*(to set)의 복합어로서, “두 가지 사물(entities), 운동, 원리가 서로 맞서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⁵⁰⁾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반립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사이, 천사와 귀신의 세력 사이, 그리고 좀 더 추상적으로는 은혜와 죄 사이”⁵¹⁾에서 일어난다.

카이퍼의 경우 반립의 문제는 학문의 세계에서 현저히 나타나는 것으로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일차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은 일반 은총의 영향력이다. 타락의 사실을 인정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인간 이성이 경험하는 죄의 영향 때문에 제대로 된 학문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이와 전혀 다르다. 역사적으로 보아 교회의 울타리 밖에서도 학문의 업적은 눈부시게 이루어져 왔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는가? 바로 일반 은총 때문이라는 것이다.

죄는 우리의 도덕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지성 또한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일반 은총을 고려하지 않는 이들은, 거룩한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이란

49) Ibid., p. 200.

50) Henry Stob, "Observations on the Concept of the Antithesis," in *Perspectives on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Studies in Its History, Theology, and Ecumenicity*, eds. Peter De Klerk and Richard R. De Ridder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3), p. 241.

51) Ibid., p. 245.

결국 허위와 자기기만으로서 그것에 귀 기울이는 모든 이들을 오도(誤導)하리라 추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희랍인들이 성경의 빛에 의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전시킨 학문은 거기서 제공되는 참되고 아름다운 성과물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놀라게 해 준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이름은 그리스도인 사상가들에 의해서도 항상 존경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회 밖에서 이루어진 학문 활동이 한편으로 참되고 본질적인 지식을 산출했는가 하면 다른 편으로는 성경의 진리와 전혀 반대되는 인생관 및 세계관으로 귀착되기도 했다는 모순적 사실에 직면한다. 조금 달리 표현하자면, 죄의 통치에 놓인 세상으로부터 일어난 학문이면서도 죄의 어둡게 하는 모습이란 거의 보이지 않는 결과를 낸 것으로 인해 뿌듯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다만 다음과 같이 - 비록 죄가 지속적으로 부패성을 퍼뜨리지만 일반 은총이 개입하여 그 작동을 저지하고 약화시킨 것이라고 - 말할 수 있을 따름이다[마지막 부분의 강조는 필자의 것].⁵²⁾

그렇다면 죄의 인지적 영향력(noetic effects of sin)이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의 학문 활동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카이퍼는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논리적 능력의 부족, 추론의 오류, 외관(appearance)에 의한 그릇된 관찰, 지둔한 이해력 등에서도 나타나지만, 진짜 죄의 영향은 “사물의 진정한 맥락, 온전한 통일성(proper coherence), 체계적 함일성(systematic unity)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⁵³⁾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 우리는 사물을 피상적으로만 보고 중심과 본질 가운데 보지 못한다. 따라서 각 사물을 개별적으로만 파악하고 사물 전체를 하나님과의 연관성에서, 하나님께 기원을 둔 것으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한 연관성, 곧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물의 통일성은 오직 우리의 심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⁵⁴⁾

52) Abraham Kuyper, "Common Grace in Science," in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p. 448.

53) Ibid., p. 449.

54) Ibid.

그렇다면 인간이 죄로 인해 학문의 활동에 지장을 받는 것은, 단지 실증적 수준에서 개별 사실을 분석하는 일이나 하나의 사건을 단순히 관찰과 논리적 차원에서 규명하는 일과 연관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연관 관계에서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다.

학문은 나무, 돌 및 금속을 탐색하는 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요, 흡사 거울에 비추어 보듯 전체(*the whole*)를 파악할 줄 알 때 본질적 학문(*essential science*)이 된다. 따라서 죄의 어두움은 세부 사항에 대한 지식과 연관해서가 아니라 더 고차원적이고 더 고상한 개념으로서의 학문과 연관해서 등장한다. 인간이 아닌 피조물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 학문 활동이 사물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그 사물들의 운동을 통찰하는 법칙의 탐구만으로도 기적처럼 결과를 산출한다. 그러나 인간에 관한 학문은 그런 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은 영적 생활의 중심이신 바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질문들에 직면하게 된다.⁵⁵⁾

바로 여기에서 카이퍼는 결국 학문의 영역을 두 가지로 대별한다. 하나는 죄의 어두운 세력이 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역이요, 또 하나는 그런 영향력에 크게 좌우되는 영역이다. 전자는 일반 은총이 죄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학문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요,⁵⁶⁾ 후자는 일반 은총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여⁵⁷⁾ 그리스도

55) Ibid., p. 450.

56) 이렇듯 관찰, 의식의 데이터, 논리 등 세 가지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정밀 학문(*exact science*)의 경우에는 학문 활동이 그리스도인에게나 비그리스도인에게나 똑같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성(*commonality*)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코 일반 은총 덕분이다"[*Del Ratzsch, "Abraham Kuyper's Philosophy of Science,"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 27, No. 2 (November 1992): 287.*]

57) Jacob Klapwijk은 이 점에 있어서 필자와 다르게 이야기한다. "이제 일반 은총의 개념은 비그리스도인의 사상을 인정하는 기초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립적 행동의 기초가 된다. 카이퍼는 일반 은총의 개념으로 학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주도적 활동을 정당화하고 비그리스도인의 노력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다"[강조는 필자의 것] ("Antithesis and Common

인의 학문 활동과 비그리스도인의 학문 활동 사이에 반립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물론 이것이 이러한 반립의 영향권 밖에 존재하는 낮은 수준의 학문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결론이 감각적 관찰에 의해 통계를 받고 검량(檢量, weighing), 계량(measuring) 및 계수(counting)에 의해 획득되는 한, 모든 연구자들은 서로 간에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런 낮은 수준에서 고수준의 학문으로 올라가자마자 주체자(*subject*)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육적인 사람"(*natural man*)과 "영적인 사람"(*spiritual man*)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다(이 부분의 강조는 필자의 것). 이것은 신학에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 과학의 철학적 열개(*philosophical framework*)와 모든 정신적 학문(*spiritual science*)(인문 과학 및 사회 과학을 의미함: 역자 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⁵⁸⁾

카이퍼는 이러한 반립의 현상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 어떻게 첨예하게 나타나는지 설명한다. 우선 그는 모든 학문 활동이 근본적으로 "신앙"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밝힌다. "모든 학문은 자아에 대한 신앙 곧 우리의 자아 의식(*self-consciousness*)에 대한 신앙을 전제한다. 그것은 감각의 정확한 작용에 대한 신앙을 전제하고, 사유 법칙의 정확함에 대한 신앙을 전제하며, 특수 현상 뒤에 숨어 있는 보편적 그 무엇에 대한 신앙을 전제하고, 삶에 대한 신앙을 전제하고 특히 우리가 출발하는 원리에 대한 신앙을 전제한다."⁵⁹⁾

Grace," p. 175). 필자는 그리스도인의 반립적 행동이 일반 은총의 약화에 기인한다고 보았지만, Klapwijk은 오히려 일반 은총의 도구적 역할 때문이라고 기술한다. 핵심이 되는 사항은, 일반 은총의 역할 변화, 즉 죄를 억제하는 면에서는 적극적 역할을 하나 반립의 현상과 관련해서는 소극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그 자체만으로 가능하지 아닌지 하는 것이다. 적어도 Klapwijk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일반 은총이 적극적 역할을 할 때는 그 자체의 본질적 특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아 능동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반립의 현상이 나타날 때는 오히려 일반 은총이 특수 은총의 제재를 받는 - 그리하여 소극적 역할을 하게 되는 -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58) Abraham Kuyper, "Common Grace in Science," p. 458.

59)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p. 131.

그리고 나서 카이퍼는 반립이 어디로부터 생기는지 밝힌다.

갈등이 생기는 것은 신앙과 과학 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존재하는 우주가 정상적(normal) 상태로 있다는 주장과 비정상적(abnormal) 상태로 있다는 주장 간에 일어나는 문제다. 만일 현 상태의 우주가 정상적이라면 우주는 잠재적 상태(potencies)에서 출발하여 이상적 상태(ideals)에 이르는 영원한 발전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현 우주의 상태가 비정상적이라면, 과거에 어떤 교란 사태(disturbance)가 발생한 것이요, 오직 중생케 하는 능력만이 우주가 최종 목표에 이르도록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이것이 반립 현상의 주된 내용이요, 이것이 생각하는 지성인들을 학문의 영역에서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위치의 전투 대항으로 갈라놓는 요인이다. 덧붙여 부분의 강조는 필자의 것.⁶⁰⁾

결국 높은 수준의 학문 영역에 있어서 반립에 직면하는 것은 학문을 수행하는 이의 의식 때문이다. 중생자의 의식과 비중생자의 의식이 공통적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관찰, 데이터, 논리적 사고에서 어떤 차이를 갖기 때문이 아니라, 전자의 경우에는 그들의 의식 가운데 죄에 대한 인식, 믿음의 확신 및 성령의 증거를 보유하고 있고⁶¹⁾ 후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반립의 현상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결국 특수 은총과 일반 은총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 은총은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공통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특수 은총은 둘 사이의 비공통성을 극명히 부각시키기 때문이다.⁶²⁾

60) Ibid., pp. 131-2.

61) Ibid., p. 137.

62) 필자는 지금까지 반립의 현상이 대부분 학문 활동에서만 나타나는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필자의 진정한 의도가 아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함께 참여하는 삶의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심각히 반립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반립은 모든 영역과 마음의 모든 감각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 우리의 생각 매 가닥 속에서, 우리의 반감과 공감 속에서, 우리의 총체적 세계관 속에서, 개인적·가정적·사회적·정치적 실존에 관한 우리의 모든 개념 속에서 작용한다... 반립은 우리의 법체계 가운데 또 우리의 교육 방법 속에 존재하고 있다"[Abraham Kuyper, "Concerning the Antithesis," trans. Henry Van Til, *Torch and Trumpet*, 4 (1955), p. 31의 내용으로서, James E. McGoldrick, *Abraham Kuyper: God's Renaissance Man* (Darlington, England: Evangelical Press,

필자는 지금까지 일반 은총과 특수 은총의 상관 관계를 세 가지 항목에 따라 정리해 보았다. 이제 카이퍼의 일반 은총론에 대해 비평을 시도하고자 한다.

(4) 카이퍼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아브라함 카이퍼는 평생에 걸쳐 여러 종류의 활동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그가 다루는 사상적 주제 또한 그야말로 다양하기가 비길 데 없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일반 은총은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강조하고자 한 가르침이 틀림없다. 문제는 그에 관한 설명 내용이 하도 방대해서 어떤 경우 사변적으로 흐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 일관성이 결여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이제 카이퍼의 일반 은총론에 대해 제기된 몇 가지 항목의 비판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필자 나름의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첫째, 타락 후 인류의 자연적 생명 유지를 일반 은총 덕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아담은 동산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7)는 경고를 받았으나, 범죄 후에 즉시로 신체적 죽음을 겪지는 않았다. 그렇게 목숨이 부지되는 동안에 원복음에 대해서 들었고(창 3:15),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며(cf. 창 3:20-21), 후손을 번성시킬 수 있었다(창 5:3-32).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일반 은총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헨리 반 틸(Henry R. Van Til)은 카이퍼의 이러한 성경 해석에 재동을 건다. 반 틸은 "일반 은총이 없었더라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허무한 상태(void)로 돌아갔을 것이고, 인간은 범죄한 당일에 영적으로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죽었으리라"⁶³⁾는 카이퍼의 주장이 성경의 증거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카이퍼의 주장은 어떤 면에서 성경의 증거를 벗어난단

2000), p. 155에 인용되었다.

63)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p. 134.

말인가? 반 톨은 두 가지 서로 연관된 이유를 제시한다.

(i) 우선, 인간의 범죄 이후 피조계의 멸절이 뒤따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지 일반 은총 때문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반 톨 자신이 인정하듯 카이퍼 역시 하나님의 작정이 그 원인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카이퍼는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다. “비록 카이퍼는, 하나님의 작정(counsel)이 확실하고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기 때문에 타락 후 인간의 존재가 위협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반 은총의 개입이 없었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하에 즉각 멸망했을 것이라는 식으로 창세기 2장을 해석한다.”⁶⁴⁾ 필자가 보기에는 여기에 반 톨 편에서 혼동(아니면 부정확한 표현)이 있는 것 같다. 범죄 후 인류의 존속이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라는 것은 초월적 관점에서 인과 관계를 밝힌 것 —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 이요, 일반 은총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피조계 내의 인과 관계를 드러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카이퍼의 주장을 모순된다고 말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여길 수는 없다고 하겠다.

(ii)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혹시 반 톨이 자신의 부족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의 핵심적 반박 사항은 그대로 존립할 수 있다. 또 이것이 카이퍼의 주장을 비성경적이라고 보는 그의 두 번째 이유와 연관을 갖는다. 반 톨은 여기에서 일반 은총의 성격에 대한 두 가지 차원, 즉 윤리적 차원과 형이상학적 차원을 언급하면서, 전자에는 찬성하지만 후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일반 은총을 죄의 억제와 연관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일반 은총이 수행하는 윤리적 기능과 연관시켜야지 형이상학적 기능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일반 은총은 우주의 존립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의지로,

또는 인간의 구성적 본질을 유지시키거나 창조주의 형상 담지자(擔持者)(image-bearer)로서의 원초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어떤 능력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인류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윤리적 태도로서,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나 동료에 대해 적대감을 최고도로 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 그가 어떤 도덕적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⁶⁵⁾ [Cornelius Van Til, *A Letter on Common Grace* (Phillipsburg, N. J., n. d.), p. 38]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⁶⁵⁾

필자가 보기에 상기의 비판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 은총을 하나의 사물(entity)로 실체화(substantiation)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지나친 사변적 처사요 위험 부담을 크게 안는 형이상학적 게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반 톨의 주장처럼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윤리적 태도 — 예를 들어, 그의 오래 참음심(사 48:9; 눅 13:6-9; 롬 2:4; 베후 3:9)에 반영되는 특질 — 가 구체적 열매를 맺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타락 후 인류의 생명이 연장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에 기인한 것임과 동시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심 — 이것이 일반 은총의 현상을 가능케 하는데 —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일반 은총은 노아의 언약과 연계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노아 언약이 일반 은총의 기초 혹은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대범한 주장이다. 물론 노아의 언약이 인간의 자연적 삶과 부분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 (i) 노아는 인류 후손과 자연 세계에 영향을 미칠 언약에서 중개자 노릇을 했다. (ii) 하나님께서는 노아와의 언약을 통해 ① 노아의 홍수처럼 광범위한 자연 재해를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창 8:21; 9:11, 15)는 것과 ② 땅의 존속 기간 동안 수확·날씨·계절·시간과 관련한 자연의 순환이 지속되리라는 것(창 8:22)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카이퍼의 주장은 이상의 소박한 사항에만 매여 있지 않다. 따라서

64) Ibid.

65) Ibid., p. 232.

필자는 몇 가지 점에서 그의 입장을 비판하고자 한다. (i) 비록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자연계와 인류의 일반적 삶에 우호적 결과를 약속했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카이퍼가 이해하는 바처럼 일반 은총이 실현되는 것 - 악의 저지, 시민적 선의 고양, 학문의 발달 등 - 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ii) 노아의 홍수는 타락 및 종말에 비견할 정도로 역사의 분기점이라 할 수가 없다. 우선, 이것은 주로 자연의 대격변일 뿐 그 근본에 있어 문화적인 것은 아니다. 그에 비해 타락과 종말은 전 피조계에 영향을 끼치는 구속사적 분기점이다. 또, 노아의 홍수를 자연적인 격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것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해서는 신학적 보수주의자들 사이에 이견(異見)이 존재함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홍수를 전(全) 지구적 재해(global calamity)로 보지 않는 입장도 있다는 말이다.⁶⁶⁾ 따라서 노아의 홍수는 결코 타락 및 종말과 같은 격으로 취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iii) 카이퍼는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와 같이니라”(사 54:9-10)에 기초하여, 일반 은총이 세상의 종말 시까지 유효하리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카이퍼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화평케 하는 언약”을 노아와 맺은 언약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주석가들은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은혜 언약으로 해석한다.⁶⁷⁾

66) 예를 들어, Davis A. Young, *Creation and the Flood: An Alternative to Flood Geology and Theistic Evolution*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77), p. 212; Steven A. Austin and Donald C. Boardman, "Did Noah's Flood Cover the Entire World?" in *The Genesis Debate: Persistent Questions about Creation and the Flood*, ed. Ronald F. Youngblood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90), pp. 210-29를 참조하라.

67) Franz Delitzsch, *Biblical Commentary on the Prophecies of Isaiah*, Vol. II, trans.

결국 이사야서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점은, 노아 홍수 이후로 다시는 땅을 침몰시킬 그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약속과 포로 이후 다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둘 다 견고성에 있어서 공통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야 54:9-10을 내세워 일반 은총이 종말 시까지 유효하다고 입증하려는 시도는 실패라고 할 수 있다.

(iv) 카이퍼는 또 성경의 명백한 지지를 받기 힘든 몇 가지 진술을 하고 있다. ① 일부 맹수들이 노아의 홍수와 더불어 사라졌다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이런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구절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어서 극심한 죄를 지을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히려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으니, 수명의 단축이 문화의 건설을 약화시켰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카이퍼는 노아 홍수 이후 일반 은총의 영향력이 증대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후자의 결론이 더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③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야 비로소 인간에게 동물을 음식으로 주셨다고 말하는데, 이 역시 모든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주장이 아니다.⁶⁸⁾

셋째, 카이퍼는 서구 문명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낙관적인 해석을 시도했다. 일반 은총이 죄의 세력을 억제하고 시민적 선을 고양하며 인간의 숨은 재능을 고도의 수준으로 개현시키자, 인류는 곳곳에서 문화를 발전시켰다. 카이퍼는 중국, 일본, 인도, 멕시코, 페루 등지에서 그런 흔적을 발견한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문명사의 흐름은 자취를 감추거나 성장의 맥이 뚝 끊겨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 가운데 오직 서구 문명만이 고도의 발전을 거듭해 왔고 (카이퍼 당시로 볼 때) 앞으로도 계속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이 그런

James Martin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0 reprint), p. 348; Edward J. Young, *The Book of Isaiah*, Vol. III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2), p. 368.

68) 이와 관련하여, 송인규, “선악과의 미스테리,” 『칼빈의 신학과 한국 교회의 과제』, 신복음 명예총장 은퇴 기념 논문집 출판위원회 편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2), pp. 508-9, 각주 #22를 참조하라.

차이를 가져 왔는가? 서구 문명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발전할 수 있었는가?

카이퍼는 여기에서 그리스와 로마에 존재했던 일반 은총이 실상 기독교를 맞기 위한 예비 단계였다고 말한다. 기독교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에 부가되었을 때, 이 문화는 전대미문의 만개 상태에 돌입하였다. 서구 문화의 팽창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제 서구 문화의 특별한 성격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특수 은총)과 문명의 발전은 별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서구 문명과 별도의 새로운 세계를 도래시킨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같은 고대 세계요, 일반 은총에 의해 보존된 것이며, 특수 은총에 의해 생명의 핵심이 회복되고 뿌리의 암이 제거된 것이다. [Pro Rege: Of het Koningschap van Christus (For the King: About the Kingship of Christ) (Kampen: Kok, 1911), 3:183]"⁶⁹⁾

필자는 모든 문명의 발전 뒤에는 일반 은총의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진술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 비록 무엇이 문명의 발전이고 무슨 기준에 의해 문명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문명의 발전과 일반 은총 사이에 존재하는 긴밀한 관계만큼은 부인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서구 문명의 발전에 대한 카이퍼 식의 해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기를 들지 않을 수 없다. (i) 서구 문화의 발전이 꼭 기독교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힘들다. 어떤 학자는 서구 문화에 있어 높은 수준의 학문과 과학 기술의 발전이 르네상스와 인문주의에 덕을 본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한다.⁷⁰⁾ (ii) 뿐만 아니라 서구 문화의 발전 내용 가운데 악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까닭 잘못하면 그것을 기독교 탓으로 여길 수 있다. 서구 문화를 말할 때 과학 기술의 발전, 교육이나 재화의 증기뿐만이 아니고 유럽 국가들의 제국주의

정책을 내놓을 수가 없다.⁷¹⁾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서구 문명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환경의 파괴, 유대인 학살, 인종 및 성차별주의, 전쟁 무기 개발, 다국적주의의 횡포 등도 그 목록 가운데 포함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명의 발흥과 성장 — 특히 서구 문명 — 을 일반 은총 (및 특수 은총)과 연관시킴에 있어 순전한 문화적 낙관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일반 은총과 특수 은총 사이에 골 깊은 이원론이 개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일반 은총과 특수 은총의 본질적 성격이 다르고, 또 각각은 창조의 영역 그리고 재창조의 영역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도 두 영역을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주의할 기을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중보자이신 동시에 구속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카이퍼의 비평가들은 바로 이 대목에서 깊은 우려와 불만을 토로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창조의 중보자와 구속의 중보자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이원론에 대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벨레마(W. H. Velema)에 의하면, 카이퍼의 두 가지 은총에 나타나 있는 극단적 이원론은 그의 창조 교리에 뿌리박은 것이라고 한다[De Leer van de Heilige Geest by Abraham Kuyper (s'Gravenhage, 1957), pp. 225ff. 여기에는 사물의 본질(essentia of the things) — 이는 로고스 안에 영원한 것인데 — 과 창조에 의해 생겨난 질료 내 존재(existence in matter)라는 두 가닥이 있다. 카이퍼는 이것을 인간론에도 일관되게 적용시켜 두 가지 관계를 상정하는데, 하나는 죄에 의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실체론적 관계(ontic relationship) — 이는 실유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유비에 해당한다 — 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응을 요하는 윤리적 영역에서의 관계이다. 인간 안에 있는 이 실유(being)와 본성(nature)의 이원성은 창조의 교리에 있어 본질

69) N. H. Gootjes, "Schilder on Christ and Culture," p. 39.

70) Ibid., p. 55, endnote #11.

71) James D. Bratt, *Dutch Calvinism in Modern America: A History of a Conservative Subculture*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4), p. 232, endnote #21.

(*essentia*)과 존재(*existence*)에 상응하는 것이고, 이로써 두 종류의 은혜가 요청된다. 이 구별은 자연(*nature*)과 은총(*grace*)이라는 해묵은 구별에 상응하는 것이다. 카이퍼는 창조의 증보자라는 교리 ... 를 상정함으로써 토마스주의의 이원론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⁷²⁾

문제는 카이퍼가 이러한 이원론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특수 은총과 일반 은총을 — 혹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증보자 되심과 창조의 증보자 되심을 — 병치시키지 말고, 후자를 전자의 관점에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일반 은총이 특수 은총(혹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음과 정죄의 선고 하에 있는 이들에게 계속 그러한 창조의 은택들을 부여하실 수 있단 말인가? 택자와 관련해서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고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유기자(遺棄者, reprobates)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가?”⁷³⁾ 라는 질문으로 압축이 된다.

우리는 이 질문과 관련하여 두 가지 극단을 파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속적 공로에 의해 유기자들을 위한 자연적 은택들을 획득하셨다는 생각이다. 그리스도는 오직 택자만 위해 의와 공로를 얻으셨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고 신학적으로 지나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비택자들에 대해 아무런 은택도 — 구원과 연관된 것뿐 아니라 비구원적 성격의 것들까지도 — 끼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전히 비택자들에 대한 은택을 말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얼마든지 확증되는 바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두 극단 사이에 합당한 답변이 존재한다. 캔들리쉬(Robert Smith Candlish, 1806~1813)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타락에서부터 최후 심판까지 인류의 전 역사는 유기자와 관련하여 오래 참으심의 시기(a dispensation

of forbearance)로서, 그 때에는 사람들의 성품과 운명에 영향을 주는 다수의 자연적 · 도덕적 은택이 심지어 이방인에게까지 — 물론 교육을 받고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지만 — 미친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하여 그들에게 오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오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그들을 위해 의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⁴⁾ 벨코프 역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인류의 이러한 일반적 은택들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유래하는데,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신 바일 뿐 아니라 관계 당사자들에게 은택이 되도록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바이다. 물론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 하나님의 의도(*design of God*)는 일반인들의 현세적 행복(*temporal well-being*)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또 직접적으로는 택자의 구속과 연관이 있다. 그러나 이차적 또 간접적으로는 인류에게 무차별적으로 부여되는 자연적 은택을 포함했다. 저주와 사망 이외에 자연인이 받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구속 사역의 간접적 결과이다 [강조는 필자의 짓].⁷⁵⁾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적 의도가 일차적으로 택자를 향한 것인데 어떻게 비택자에게도 부차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택자와 비택자가 실제의 삶 가운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커닝햄(William Cunningham, 1805~1861)의 설명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매우 적절하다. “비록 간접적이고 부차적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인류를 향한 많은 은택들이 흘러나온다. 그것은 집합적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견지하는 관계 때문이다[강조는 필자의 짓].”⁷⁶⁾ 하지(A. A. Hodge) 역시 이 점을 잘 밝히고 있다. “인류의 경우와 같이 출생에 의해 번식을 하고

74) 이는 A. A. Hodge, *The Atonement*, p. 358f에 인용된 바로서, Louis Berkhof, *ibid.*, p. 438에 재인용되었다.

75) *Ibid.*, pp. 438-9.

76) *Historical Theology*, Vol. II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0 reprint), p. 333.

72) Henry R. Van Til,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p. 135.

73)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p. 437.

군집하여 살아가는 종족에게 있어서 그 가운데 일부 택자들의 구원을 확보하려는 계획은, 택함을 받지 않은 다른 모든 이들의 성품과 운명에 지대한 영향 — 좋은 나쁜든 — 을 끼침이 없이 의도한 목표를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다.”⁷⁷⁾

이렇게 일반 은총을 특수 은총(특히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작동 원리에 비추어 풀어갈 때만이, 두 종류의 은총 사이에 끼어드는 이원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반립의 현상과 일반 은총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한편으로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했다. 이것이 없으면 비신자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진선미의 흔적과 학문적·도덕적·예술적 성취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나 카이퍼는 다른 한편 그리스도인이 인간 실존의 모든 차원과 전 국면에서 비그리스도인과 직면하게 되는 반립의 현상에 대해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기도 하지만,⁷⁸⁾ 또 어떤 이는 카이퍼가 두 가지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가벼운 비판을 하기도 한다.⁷⁹⁾ 그러나 가장 비판적인 입장에 의하면 이 두 가지 가르침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은총의 분야를 특수 은총의 영역에서 분리시키곤 하기 때문에, 카이퍼는 자신이 종교적 반립의 원리를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 은총이라는 관념이 비그리스도인의 사상을 감사하는 기초로 작용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반립적 행동과 그리스도인의 주도권에 대한 기초로 작용해야 하는가? 일반 은총의 원리로부터 출발하는 『일반 은총』

77) A. A. Hodge, *The Atonement*, pp. 358f.로서, Louis Berkhof, *ibid.*, p. 438에 인용되었다.

78) “반립을 사실과 원리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 은총의 교리에 대한 부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교리는 계시에 있어서 상호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이 두 가지에 대해 현대적 모양새를 갖추도록 한 카이퍼가 이 둘을 똑같은 열의로써 확언하기 때문이다”(Henry R. Van Til, *ibid.*, p. 185).

79) James E. McGoldrick, *Abraham Kuyper: God's Renaissance Man*, p. 155; James D. Bratt, *Dutch Calvinism in Modern America*, p. 30.

(*De gemeene gratie*)에서는 카이퍼가 반립을 주로 고수준의 학문에 국한시키려고 한다(*GG III 515*). 그러나 그가 『칼빈주의 강연』(*Lectures on Calvinism*)에서와 같이 반대편에서 출발하여 반립의 원리를 강조할 때는, 종종 일반 은총에 관한 자신의 사상을 잊어버린다. “칼빈주의와 과학”이라는 장에서는 고대 회랍과 로마에서 발견된 “철학적 빛이라는 보물”에 대해 경탄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일반 은총을 합법화하는 논변에 의한 것이었다(*LC 121, 125*). 그런데 바로 그 뒤에서 카이퍼는 “정상주의자들”과 “비정상주의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학문 영역에서 포괄적인 조직적 반립을 지지하고, 우리가 전에 본 것과 같은 그리스도인끼리의 학문 활동에 관한 전반적 프로그램을 펼쳐보인다.

한마디로 말해, 카이퍼는 종교적 반립에 관한 견해와 일반 은총에 관한 견해를 조화시키지 못했던 것이다(강조는 필자의 것)...⁸⁰⁾

이 평가에 의하면, 카이퍼가 『일반 은총』에서는 일반 은총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종교적 반립은 높은 수준의 학문 활동에만 국한시켰다. 그러나 『칼빈주의 강연』에서는 그 경향이 역전되어 주로 반립의 원리를 내세웠고, 세상의 영역에 있어서 비신자와의 공통적 참여성과 유대성 — 이것이 일반 은총의 교리가 강조하는 점인데 — 은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이다. 사실, 카이퍼가 그 후에 발표한 *Pro Rege*에서 반립의 원리가 훨씬 더 강하게 천명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상의 비판은 훨씬 더 첨예하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런 비판이 생기는 궁극적 원인을 추적해 보면, 그 출발점은 결국 일반 은총과 특수 은총의 본질적 차이에서 발견된다. 이 두 은총은 내용, 범위, 목적, 근거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조화될 수 없는 상극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⁸¹⁾ 그러나 이에 대한 해명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네 가지 사항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⁸²⁾ (i) 비록 일반 은총이

80) Jacob Klapwijk, "Rationality in the Dutch Neo-Calvinist Tradition," in *Rationality in the Calvinian Tradition*, eds. Hendrick Hart et al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3), p. 102.

81) *Ibid.*, p. 100.

82) 필자는 이 답변에 있어서 S. U. Zuidema, *Communication and Confrontation* (Assen/Kampen, The Netherlands: Royal VanGorcum Ltd./ J. H. Kok Ltd., 1972),

특수 은총과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카이퍼가 일반 은총과 관련해 마치 어떤 내적 필연성에 의해서인 것처럼 이렇게 별도의 목적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논의의 출발 시에 특수 은총의 목적과 그 활동 범위를 너무 좁게 정의했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특수 은총의 기둥 옆에다 일반 은총의 기둥을 세우지 않았다면, 그는 이 좁은 정의 때문에 영지주의적 진영이나 재세례파의 진영으로 내몰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일반 은총에 귀속시킨 독립적 목표는 다만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것이다.⁸³⁾

(ii) 일반 은총의 교리는 특수 은총과 무관한 어떤 활동 영역을 설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카이퍼가 자신의 일반 은총 교리으로써 의도한 바는 비신자들의 문화적 활동과 성취에 대해 모종의 “중립적” 인식(neutral appreciation)의 길을 닦고자 함이 아니었다. 그가 훨씬 더 원했던 것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반 은총의 영역” - 이는 특수 은총에 기원을 두고 있고 특수 은총으로부터 그 추진력을 도출한 것인데 - 에 자자들 나름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개혁의 길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카이퍼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왕을 위하여 능동적이 되는 길을 보여 주고자 했던 것이다.⁸⁴⁾

(iii) 일반 은총은 특수 은총에 비해 종속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반 은총의 독자적 목적이라는 가르침이 여러 가지 말로 배척을 받고 있고, 현 세대에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역사라는

pp. 52-105의 내용에 힘입은 바 크다. Zuidema는 그의 글, pp. 53-7에서 세 가지 이유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필자는 다른 곳에 나타난 내용까지 감안하여 한 가지 항목을 더 첨가했다.

83) Ibid., p. 53.

84) Ibid., p. 54.

것도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구원론적으로 개념이 잡혀 있다. 여기에서는 “왕을 위하여”가 주된 소리를 발하고 있다 -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께서 “일반 은총의 왕”이라는 고백을 받고 있고, 일반 은총이 특수 은총과 무관하게 별도의 목적을 가진다는 것은 부인된다….

일반 은총은 영원한 미래 속으로 흘러드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고, 그리스도는 그런 식으로 하여 “일반 은총의 왕”이 되실 것이다.⁸⁵⁾

(iv) 일반 은총은 특수 은총과 달리 그릇될 수가 있다.

… 이러한 양극적 이원론이 나타나는 구절 속에서, 카이퍼는 창조와 재창조, 일반 은총과 특수 은총 사이의 대조점을 일반 은총이 특수 은총에 반립적으로 맞서게 되는 근거로까지 간주한다. 심지어는 이것이 특수 은총에 대한 위협이라고까지 불린다 … 그러나 이렇게 극단적 경우에도 … 카이퍼의 문화적 낙관주의와 문화의 개혁에 대한 그의 신념에는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라 - 바로 그 때에도 특수 은총을 위협에 빠뜨리고 파멸의 위협을 하는 것은 실상 일반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의 악용(abuse)이다. 풍성히 계발된 피조물의 잠재성을 비신자들이 오용함으로써, 일반 은총의 문화를 특수 은총의 영역 및 하늘 나라와 대치(對峙)시키는 것이다.

… 일반 은총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거역하는 방향으로 잘못 사용될 수 있지만, 특수 은총은 절대 그렇지 않다. 특수 은총의 영역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방향으로만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는 두 방향 사이에 어느 한 쪽을 택할 수 있다. 실로 일반 은총은 심지어 일반 “비은총”(dis-grace)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⁸⁶⁾

이상의 네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할 때 일반 은총과 반립은 결코 모순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일반 은총은 반립을 조성하고, 왕을 위하여 식의 반립적 행동을 가능하게 해 준다.”⁸⁷⁾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일반 은총』과

85) Ibid., p. 56.

86) Ibid., p. 70.

87) Ibid., p. 58.

『왕을 위하여』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

확실히 카이퍼는 『왕을 위하여』라는 제목이 붙은 이후의 연구에서 이 점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작품 『일반 은총』의 계획, 논조 및 내용으로부터 떠난 것은 아니다. 『왕을 위하여』가 『일반 은총』에 대한 자기 교정의 흔적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말이다. 카이퍼의 이론은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의 『일반 은총』 역시 마찬가지이다.⁸⁸⁾

(5) 바빙크의 일반 은총론

지금까지 필자는 일반 은총에 대한 적극적 입장으로서는 아브라함 카이퍼만 소개했다. 이것은 그밖에 다른 인물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가 있다. 사실 연대순으로 평가한다면 일반 은총에 관해 공적 표명을 시도한 것은 바빙크가 먼저이다.⁸⁹⁾

바빙크의 일반 은총론이 의견상으로는 카이퍼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는 듯 여겨진다. 바빙크 역시 “일반 은총”이라는 용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특수 은총과 개념 상 차별화시켰고,⁹⁰⁾ 비신자의 삶 — 이성, 종교의 씨앗, 음악, 예술, 과학, 정부 등 — 가운데 나타나는 선한 흔적들이 일반 은총의 덕택이라고 강조했다.⁹¹⁾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빙크의 이론은 카이퍼의 것보다 훨씬 더 신중했고⁹²⁾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⁹³⁾ 어떤 학자는 바빙크와 카이퍼의 차이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⁹⁴⁾ (i) 바빙크는 반립의 현상을 사람들 사이나 조직

사이의 갈등에서 찾지 않고, 원리의 갈등에서 찾았다. (ii) 바빙크는 이방 세계에 작용하는 일반 계시의 빛과 관련하여 카이퍼보다 일반 은총의 역할을 더 일관성 있게 주장했다. (iii) 바빙크는 기독교가 고대 문명이나 철학을 파괴하기보다 그것을 “기독교화하고” 또 “거룩하게 했음”을 주목함으로써 카이퍼보다 더 열린 자세를 취했다.

지금까지 필자는 일반 은총과 관련하여 적극적 태도를 견지하는 입장에 대해 주로 카이퍼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이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일반 은총에 대해 소극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세 명의 학자들 즉 스킨더와 혹스마와 코넬리우스 반 툴의 견해를 소개하고 또 역시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계속)

88) Ibid.

89) Ibid., p. 53. 그가 1894년에 캄펜신학교 교장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전달한 이 취임 연설은, 후에 Herman Bavinck, "Common Grace," trans. Raymond C. Van Leeuwen,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 24, No. 1 (April 1989): 38-65로 나타났다.

90) Herman Bavinck, "Common Grace," pp. 40-1.

91) Ibid., p. 51.

92) James D. Bratt, *Dutch Calvinism in Modern America*, p. 31.

93) Henry R. Van Til,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p. 231.

94) Jacob Klapwijk, "Rationality in the Dutch Neo-Calvinist Tradition," pp. 103-4. 필자는 Klapwijk의 주장에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두 학자 사이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개하는 바이다.